

## 김병로의 "조선," 한반도 통일과 통합의 근거\*

### Philo Kim's Conception of *Chosun* Korea, the Evidence of One Unified and Integrated Korea

이현주 \_고려대학교

Lee, HyunJoo \_Korea University

지난 5월 10일 문재인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북한은 5월 한 달간 4회에 걸쳐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이를 ‘새 정부에 대한 시험’ 또는 ‘길들이기’로 보는 시각을 일축하며 자국의 신형 로켓(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의 핵전쟁 침략위협으로부터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의 담화는 “우리의 자위력 강화조치는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사로서 미국에서 행정부가 교체되고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중단되거나 속도가 늦추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의 자위적 핵보복 타격 능력은 더욱 높은 속도로 강화되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의 시각은 ‘대화과 타협의 상대’이나 ‘적대국’이냐로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5000년 역사를 고려할 때 분단 70년은 짧은 기간이다. 그렇다고 북한을 덩석 끌어안을 수 없는 것이 남한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김병로의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북한을 읽기 쉽도록 돕는 안내서이다.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도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는 생각보다 희귀하다. 더욱이 북한의 정치사상이나 정치철학을 심도 깊게 다루는 연구자는 손을 꼽을 정도이

\*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에 대한 서평.

다. 북한은 표층적 변화와 심층구조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념적 지향과 경험적 사실을 구분하기 까다롭다. 이러한 북한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접근’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와 같이 구조·형위의 분석과 동시에 사회심리에 대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병로는 북한이 주체사상을 국교화한 종교사회로 변화되었다고 북한에 대해 사회심리적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사회주의 체제의 공식이념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1974년부터는 주체사상 학습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북한의 주체사상은 단순한 사상이나 이념을 넘어서 종교적 차원으로 발전하였으며, 북한사회는 주체사상을 국교화한 종교사회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숭배행위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종교의 성소에 해당하는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을 45만개나 갖추고 있다(김병로, 2000: 94).

에밀리오 젤틸레는 근대의 정치운동이 세속종교가 되는 조건은 세가지 지적했다. 첫째, 그와 같은 정치운동이 삶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규정할 때, 둘째, 이러한 운동에 가담한 모든 구성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할 공공의 도덕적 계율을 만들 때, 셋째, 이러한 운동이 역사와 현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극화(劇化)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리하여 민족, 국가, 혹은 정당으로 구현되고 모든 인류의 재생적 힘으로 찬양되는 ‘선민’과 긴밀히 결합된 그들만의 ‘신성한 역사(sacred history)’를 만들 때다. 북한에 대한 종교사회심리적 접근은 북한주민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설명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 실시한 ‘북한체제에 대한 충성도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북한에서 ‘체제에 충성’하였으며 이러한 충성도는 ‘20대의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이현주 2011; 2012). 북한을 이탈한 주민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북한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충성도를 가늠하게 한다.

김병로는 1991년 남북한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의 주체사상, 인권, 체제와 계층,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에 천착한 연구자이다. 30여 년 간 북한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답게 북한을 빠르고 쉽고 종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 서적이다. 내용면에서 보면 516쪽의 분량으로 다 담기 어려운 북한의 사회, 문화, 정치, 종교, 군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김병로는 북한을 몇 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 그것은 ‘지역자립체제’, ‘군사 최우선적 제도’, ‘사회계급 재조정’,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유사종교 및 조직 생활’이다.

김정일은 1964년 자신의 대학졸업논문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단위의 지역별 자립발전의 중요성과 유사시를 대비한 자급자족 체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군을 거점으로 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방상 견지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쟁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 우리는 유사시에 군 안의 주민들의 생활을 군 자체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군들에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김정일, 1964: 11)

지역자립체제의 골자는 전쟁 시에 대비하여 군(郡) 단위 이상의 200여 개 지역에 지역별 자립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이러한 지역자립체제는 자위국방 능력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 발전전략은 지역 불균형과 산업구조 왜곡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폐쇄성이 더욱 심화되는 경제적 효율성의 저하를 낳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네 가지 키워드는 북한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어 사회구조를 자폐적인 것으로 기능케 한다고 보았다. 한국전쟁은 정치적인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싹을 키우는 사회적 토양을 제공했고 특히 북한에 깊이 뿌리 내린 단 하나의 지도체제를 만들었으며, 이 폐쇄적 사회체제는 고난의 대행진으로 위기를 맞았다. 북한은 일련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것은 심각한 식량 부족, 대규모의 기근, 시장화 실험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계급질서의

균열, 도망자, 인권문제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야심적 개혁과 개방을 위한 시도는 중국과 미국의 반대로 완전히 좌절되었다. 그러한 좌절과 분노는 위험한 집착이 되어 핵무기개발에 성공하였고 자폐적 적대감은 외부세계를 거부하고 부인하도록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김병로는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전쟁의 공포에 사로 잡혀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또 깊은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보았다. 이 책은 전쟁과 폭력이 어떻게 북한의 전쟁체제를 형성하고 진화시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북한의 많은 부분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지 보여준다.

따라서 김병로의 북한은 1950년 6.25전쟁과 함께 시작된 ‘조선’이었다. 인류학자인 로이 그링커(Roy Grinker)의 비판 즉,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자기가 규정한 대로만 믿을 뿐, 현재 확연히 달라진 서로의 존재는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김병로는 ‘조선’이라는 북한이 주장하는 명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선’의 시작은 한국전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조선’이 분단과 전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가 분단되고 조선과 한국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이식됐다. 그러나 조선과 한국의 분단을 공고화한 것은 전쟁이었다. 조선과 한국은 전쟁 속에서 태어나고 전쟁위협 속에서 자리났다.....중략.....한국전쟁의 충격으로 형성된 이 폐쇄적 전시사회체제는 오늘날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선군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북한 선군체제는 전쟁과 폭력적 경험이라는 토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김병로, 2016: 7)

전쟁은 중대한 사회적 결과는 낳는데 김병로의 ‘조선’은 전쟁을 통해 ‘자기 폐쇄적 사회’ 혹은 ‘자폐성을 지닌 사회’로 재구성되는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보았다. 전쟁 이후 북한이 구축한 체제는 단순히 자립(autarky)이나 폐쇄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미흡한데 그 이유는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의 차원에서 자립이나 폐쇄보다 자기 충족적 기능이 훨씬 강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충족적 기능이 강화된 사회를 ‘자기 폐쇄적 사회’ 혹은 ‘자폐성

을 지닌 사회'라 칭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자폐라는 말은 “심리적으로 자기 세계에 고립되어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정신 현상”을 지칭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오이겐 블로일러(Eugen Bleuler)로 그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에 집착하여 근거 없는 설명을 하는 사고방식의 한 유형으로 ‘자폐적 사고’(autistic thinking)를 개념화 했다. 어원으로 보면 자폐는 ‘자아’(self)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autos'에서 따온 것으로 지나치게 위축되고 자신에게 편지적인 사람의 행동을 지칭하는 정신의학 용어로 사용된다. 자폐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과 그에 따른 행동장애다. 외부세계와의 첫 접촉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으면 자아의 해체와 상실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자신을 위협하는 외부 세계는 ‘무서운 초자아’로 다가오고 개인은 이 대상에 증오를 투사함으로써 불안을 달랜다. 그러나 그럴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과도해져서 외부세계는 공포의 대상으로 돌변하고 대상들은 적으로 변하며 개인은 외부세계의 적으로부터 박해위험을 받는 것으로 인식한다. 두려움과 증오를 주사(投射)한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분노와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동시에 ‘선한’대상으로 내사(內射)한 내면세계에 대해서는 사랑과 도움의 욕구를 크게 증가시킨다(클라인, 2011:303-329).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점차 깊어지고 자기 세계에 몰입하면서 자신의 세계 안에서 통합성과 질서를 추구하며 전일성과 정체성을 찾는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집단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는 구성원 전체가 심대한 심리적 충격을 받아 정신적 외상(外傷)이라 불리는 트라우마(trauma)를 집단적으로 겪게 된다. 전쟁과 학살, 천재지변 등의 참사를 체험하거나 목격하는 구성원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낌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불안 때문에 집착적 행동을 하게 된다. 학살과 재난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보호본능과 생존의지가 발동하여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회의와 상실감, 분노의 감정이 심리적·정서적 장애를 형성한다. 타 집단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집단심성이 형성되어 매우 폐쇄적인 사회의식이 지배하게 된다(김병로, 2016: 10)

불안하고 혼란한 사회에 독재자의 등장은 프로이트에 의해 이미 예견되었다. 프로이트는 군중이 절대군주의 성적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군중은 대부분 지도자의 최면에 걸렸다. 지도자는 상위자아의 자리를 차지했고, 여러 이유로 그곳에 머물렀다. 그가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은 새로운 심리 처방이다. 개인의 초자아가 모순되고 때때로 가까이 하기 힘든 까닭은 그것이 무의식적·집단적 초자아가기 때문인데, 지도자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분명하고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영원한 것, 신, 운명, 절대적인 진리와 결합되었다. 그는 더욱 강력한 무언가를 갖고서 필멸을 넘어 불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킨다. 지도자는 단 하나의 강력한 구호를 공표하고, 단 하나의 가치를 공표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안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차이들을 일거에 없애버린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헤아리기 어려운 상위자아를 좀 더 명확하고, 궁극적으로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설명하고, 우리의 적을 명시하며, 우리의 힘에 집중하게 만들고, 금지된 욕망을 양심의 가책 없이 만족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단순한 정책을 펼한 사람을 원한다. 이런 사람은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 적절한 거짓말로 실현 불가능한 삶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과장되게 말하면서 와인이나 사랑보다도 영구히 지속되는 완벽한 존재감을 선사한다. 그와 함께 하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벗어난다. 불안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유를 느낀다. 이런 극도의 흥분상태를 일으키는 사람은 프로이트의 말처럼 완벽하게 권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완벽한 자신감이 있고,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으며, 한결같은 자기만족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자신의 권위의 원천이자 보증인으로 신을 내세우기도 하고, 내세우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히틀러든, 스탈린이든, 마오쩌둥이든 혹은 과거에 있었거나 미래에 다가올 비슷한 종류의 인간이든 그는 혼란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일치단결과 목적달성을 설파할 것이다(아들러 2009, 117-122).

전쟁이 남긴 외상은 깊다. 북한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남한은 어떠한가. 과연 남한은 전쟁의 외상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남한의 선거 때 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북풍’이었다. 전쟁의 상징인 38선을

사이에 두고 불안하고 혼란한 북한과 남한에 정치지도자는 독재자로 군림했고 불안과 혼란을 그들의 장기 통치 환경으로 활용하였다.

지난 겨울 남한 주민들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는 계속되었고 결국 대통령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의결에 따라 탄핵되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남한에서 촛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쟁과 폐허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세대의 등장때문이다. 또한, 전쟁을 겪었으나 전쟁이나 북한보다 독재자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은 전쟁과 폐허로부터 형성된 ‘자기 폐쇄적 기억’을 유지한 세대이거나 ‘자기 폐쇄적 기억’을 전수받고 성장한 세대라 추측할 수 있다.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는 완전히 대척을 이루었고 남남갈등의 깊은 골이 그대로 드러났다.

2017년 촛불은 세가지로 이루어 내었다. 첫째는 독재자의 탄핵과 새정부의 출범이었다. 두번째는 남한에 존재하는 전쟁의 폐허로부터 형성된 ‘자기 폐쇄적 기억’이었다. 남한에 존재하는 ‘자기 폐쇄적 기억’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이해하게 한다. 남한과 북한의 ‘자기 폐쇄적 기억’은 그들의 독재자에게 기꺼히 충성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독재자에 대한 충성심에서 남한과 북한은 하나다. 통일 이후 남과 북이 하나로 통합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세번째는 촛불집회로 탄핵된 독재자는 존재하는 독재자의 최후를 예측하게 한다는 것이다. 폐쇄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의 공포와 사회의 폐쇄성을 강화한 독재자는 적대국에 대한 불안이 사라질 때 대중을 독재하는 지도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남한의 촛불집회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수령의 정당성은 수령이 인민을 위한 존재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이현주 2017, 221).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시장경제를 의연하게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교육과 경험을 통해 쌓은 가치체계가 하루아침에 기능을 상실하게 될 때 그들은 정신적으로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제도적·법률적 규범을 제시하였던

유일사상체계가 폐기된다면 이로 인해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할 것이다. 정치·제도적인 통일 너머의 내면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령론을 제외한 인간중심 철학과 사회주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확장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김병로, 2015: 37).

통합된 한국 사회 이념 갈등-평화적 공존을 위해 주체사상의 인간중심 철학과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수용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평화와 화합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해 진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반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온전한 모습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이 전쟁의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References

- 김병로 (2000). 『북한 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통일연구원.
- \_\_\_\_\_. (2015).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평화적 공존의 길”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III-한국사회와 평화』. 한반도평화연구원.
- \_\_\_\_\_. (2016).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일성 (1962).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6』.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김정일 (1964).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근로자』. 1985년 제3호, 11쪽.
- 아들러 (2009). 라영균옮김. 『인간이해』. 일빛.
- 에밀리오 젠틸레. (2005). 김용우 옮김, “정치的神성화;” 『대중독재-정치 종교와 헤게모니』. 책세상.
- 이현주 (2011). “북한의 집단주의 특성요인과 심리적 분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2).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 충성도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2호.
- \_\_\_\_\_. (2017). “북한의 주체사상과 한사상 -켄 윌버의 통합심리적 접근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하계학술회의』. 2017. 6월. 211-230쪽.